

#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의도 영향요인과 국가 간 차이: 창업효능감, 사회적 지지 및 정부지원정책을 중심으로\*

박재춘 (단국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교수)\*\*

남정민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미래ICT융합창업학과 부교수)\*\*\*

##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인특성(창업효능감)과 환경적 특성(사회적지지, 정부지원정책)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였다. 특히, 개인 및 환경적 특성과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국가 간 차이(한국, 중국)의 조절효과를 실증하였다.

한국 및 중국 대학생 626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창업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정부지원정책 모두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한국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는 사회적지지, 창업효능감, 정부지원정책 순으로 영향력을 주었다. 둘째, 중국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창업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정부지원정책 모두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는 정부지원정책, 창업효능감, 사회적지지 순으로 영향력을 주었다. 셋째, 환경적 특성(사회적지지, 정부지원정책)과 창업의도의 관계는 국가 간 차이에 의해 조절되었다. 특히 환경적 특성(사회적지지, 정부지원정책)과 창업의도의 긍정적 관계는 중국 대학생이 한국 대학생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한국과 중국은 집단 문화적 특성을 보이나 중국은 '관시'를 중요시 하는 관계 지향적 문화특성이 높고, 창업을 새로운 창업기회로 인식하는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낮은 문화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중국 대학생이 한국 대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한국 및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 대한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한국 및 중국 대학생에 초점을 둔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핵심주제어: 창업효능감, 사회적지지, 정부창업지원정책, 창업의도, 한국, 중국

## 1. 서론

국내에서 창업정책은 이제 창업활성화를 넘어 창업고도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창업과 더불어 스케일업(scale-up)이 강조되고 있다. 학계에서도 최근 20여 년 동안 창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연구(김윤정 외, 2018; 노현철·현병환, 2017; 옥준우 외, 2020)에서 창업아이디어 사업화, 창업자금, R&D, 창업교육, 창업마케팅, 창업공간 등 다양한 창업정책 및 창업프로그램이 창업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하였다.

다양한 창업정책과 창업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창업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2022.01.24.)의 '청년 구직자 취업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36.8%에 달하고 있으며,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은 2.4%에 불과하였다. 특히, 청년창업가들이 가장 극복하기 힘든 과제가 창업에 대한 부모의 반대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조

문술, 2017). IPA분석을 활용한 대학 창업환경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연구(남정민 외, 2022)에서 청년들은 '자금 및 투자 지원' 및 '창업 공간 및 시설 지원' 순으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 20여 년간 창업생태계는 성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학생 등 청년창업가들은 창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창업에 대한 부모, 지인 등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기회형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부족, 대학생에 초점을 둔 정부지원정책이 국내 창업환경에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창업의도를 강화하기 위한 영향요인으로 사회적지지, 정부의 창업지원정책, 창업효능감을 연구하는데 의미가 있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창업의도의 영향요인으로 크게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적 특성으로 성별, 성격, 동기적 요인, 정서적 요인, 인지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환경적 특성은 사회적 지원, 정부지원정책 등 업무, 조직 및 환경적 요인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2A03041627)

\*\* 주저자, 단국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교수, innosapark@dankook.ac.kr

\*\*\* 교신저자,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미래ICT융합창업학과 부교수, namjim@dankook.ac.kr

· 투고일: 2022-05-10 · 수정일: 2022-06-14 · 게재확정일: 2022-06-20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의도를 높이기 위한 영향요인에 대해 선행연구에서 강조한 개인적 특성 중 창업효능감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환경적 특성으로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 모두에게 중요한 사회적 지지와 정부지원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다양한 창업정책과 창업인프라 구축을 진행 중인 한국과 중국은 국가수준의 창업인프라와 창업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주요 국가이다. 과거 국가별 창업생태계를 비교한 연구에서 중국은 한국에 비해 개인들의 창업의도가 높고, 기회형 창업 수준도 높게 나타났으며, 창업생태계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남정민·이환수, 2019). 최근 발표된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EM,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2020)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기업가정신 종합지수(NECI)가 2019년 15위에서 2021년 6위로 상승하였으며, 재정 등 항목별 평가에서 정부정책과 정부프로그램 평가 역시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다만 항목별 평가에서 대학 이상 기업가정신 교육 수준(19개국 중 14위),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정도(19개국 중 15위), 외부 전문가 확보 용이성(19개국 중 18위)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은 적극적인 창업정책으로 창업관련 글로벌 평가에서 상위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과 중국 모두 창업생태계 조성 및 확산에 있어서 정부 주도적 창업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환경은 유사하나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창업환경에는 차이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들은 문화 및 창업환경의 차이로 창업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정부지원정책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국가문화 간 차이를 검증하여 체계적인 창업연구와 효과적인 창업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 2.1. 창업의도의 개념과 주요 이론

실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업가들의 창업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의 의도(intention)는 “실제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람들의 준비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실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연결고리이다(Ajzen, 1991; 2019). 즉, 사람들의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는 특정한 대상에 대해 사람들이 특정한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각된 가능성을 의미한다(Fishbein & Ajzen, 1975).

창업의도(entrepreneurial intention) 역시 “실제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계획된 준비정도”를 의미한다. 즉, 창업의도는 창업가들이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자 하는 정신과 욕구이며(Bae et al., 2014), 실제 창업을 준비하고자 미래의 창업계획을 의도적으로 수립하는 창업가 개인의 신념이다(Thompson,

2009). 따라서 창업의도는 창업행동의 핵심 영향요인(Bird, 1988; Krueger et al., 2000)으로 창업가들의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 토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창업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Veciana et al., 2005).

창업의도를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으로는 계획된 행동이론(Ajzen, 2019), 행동-특성모델(Frese & Gielnik, 2014), 의도된 창업행동 통합모델(Cox et al., 2018) 등이 있다.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은 사람들의 창업의도와 창업행동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면서 실제 창업행동으로 이어지는 창업가의 계획된 행동의도를 강조한다(Ajzen, 2019). 이 이론에서는 창업가의 창업의도를 결정하는 핵심변인으로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력을 주장한다. 행동에 대한 태도는 사람들이 실행하게 될 행동에 대한 호불호 정도를 의미하며, 주관적 규범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준거집단의 영향력 정도이다(박재준 외, 2022). 또한 지각된 행동 통제력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의미한다(박재준 외, 2022). 계획된 행동이론에서는 창업가들의 창업의도와 주관적 규범은 창업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이 과정에서 지각된 행동 통제력이 조절효과를 강조하고 있다(Ajzen, 2019).

둘째, 행동-특성모델(action-characteristics model: ACM, Frese & Gielnik, 2014)에서는 창업성공에 영향을 주는 창업행동 특성을 주장하면서 창업행동 특성에 영향을 주는 영향요인으로 크게 동기적/정서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을 제시하였다. 즉, 열정, 긍정적/부정적 정서, 자기효능감 등 동기적/정서적 요인은 자율성, 성취욕구, 위험추구성향 등 창업가 개인의 퍼스널리티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일반/전문/암묵적 지식 등 인지적 요인은 교육수준, 가족 내 역할모델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특히, 이 이론에서는 영향요인, 행동특성 및 창업성과의 인과관계는 국가별 문화적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도된 창업행동 통합모델(intentional entrepreneurial action model, Cox et al., 2018)은 계획된 행동이론과 행동-특성모델을 통합하여 창업성가로 이어지는 심리적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주장하였다(박재준 외, 2022). 이 이론에서는 창업가들의 퍼스널리티(성취욕구, 자율성 등)와 인지적/정서적 요인(일반/전문 지식, 긍정적/부정적 정서 등)이 행동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행동 통제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창업행동 특성(기회 추구, 정보탐색, 창의성)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창업의도가 창업행동 특성과 창업성가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창업가 특성(퍼스널리티, 인지적/정서적 요인)이 영향을 주는 심리적 과정을 통합적으로 제시하였다.

## 2.2.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

계획된 행동이론에서는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이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력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요인들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Ajzen, 2019). Ajzen(2019)은 개인적 특성으로 연령, 성별, 교육, 수입, 성격, 감정, 가치, 지식 등이며, 사회적 특성은 인종, 민족, 문화, 법률, 경제, 미디어 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ACM모델과 의도된 창업행동 통합모델에서는 창업의도의 영향요인으로 크게 동기적/정서적 개인적 특성과 인지적/사회적 특성으로 구분하였다(Cox et al., 2018; Frese & Gielnik, 2014). 먼저, 동기적/정서적 개인적 특성은 열정, 긍정적/부정적 정서, 자기효능감, 퍼스널리티(성취욕구, 통제위치, 자율성 등) 등이며, 인지적/사회적 특성은 일반/전문/암묵적 지식, 교육수준, 가족/환경 내 역할모델 등을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창업의도의 영향요인은 크게 개인적 특성(성별, 자기효능감, 성취욕구, 혁신성, 위험감수성, 자율성, 관계성 등)과 환경적 특성(가족 및 사회 내 역할모델, 사회적 지원, 정부의 지원정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향요인을 개인적 특성(창업효능감)과 환경적 특성(사회적 지지, 정부정책지원)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계획된 행동이론 등에 근거하여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변인으로 창업효능감의 효과를 실증하였다. 창업효능감(entrepreneurial self-efficacy: ESE)은 “실제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며(McGee et al., 2009), 창업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창업기회를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신념이 높아 창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한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고 하였다(Cox et al., 2002; Krueger et al., 2000).

Newman et al.(2019)은 창업효능감 통합모델에서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창업효능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Newman et al.(2019)은 창업효능감이 창업의도를 매개로 하여 실제 창업성과와 연결된다고 하였다. 많은 실증연구(Barbosa et al., 2007; Wang et al., 2002)들은 창업효능감이 창업가들의 창업의도를 결정하는 핵심변인이라고 하였으며, McGee et al.(2009)은 실제 창업한 초기 창업가들은 높은 창업효능감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McGee & Peterson(2017)는 청년 창업가의 높은 창업효능감이 창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정대용 외(2014)은 한중 대학생의 비교연구에서 한중 모두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행동이론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한국 및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대학생들의 창업효능감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1-1: 한국 대학생들의 창업효능감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1-2: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효능감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2.3. 사회적지지와 창업의도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개인을 둘러싼 환경에서 받게 되는 주변인의 지지와 기대를 의미한다(Hockerts, 2017). 즉,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부모 등 사회로부터 받게 되는 다양한 형태의 긍정적 자원으로 사회로부터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면서 심리적인 지원을 받는 긍정적인 수단이다(Cohen & Hoberman, 1983).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정서적 지지(친밀감, 신뢰, 감정이입 등), 정보적 지지(조언, 제안, 정보 등), 물질적 지지(실질적 도움 등), 평가적 지지(피드백, 자기평가 등) 등으로 구성된다(House, 1981). 특히,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는지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이 달라진다(Thoits, 1986). 예를 들어, Courneya et al.(2000)은 사회적 지지가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모 등 사회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창업가들이 부모 등 사회로부터 받는 지지의 긍정적인 인식은 창업의도 및 실제 창업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자원으로 인식되게 된다. 즉, 사회적 지지는 창업가를 둘러싼 외부 환경적 요인의 구성변인으로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오상훈·하규수, 2013).

국외 실증연구(Hockerts, 2017; Mair & Noboa, 2006; Turker & Selcuk, 2009)들은 사회적 지지가 창업의도 및 창업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국내 연구(옥준우 외, 2020; 이채원·오혜미, 2017; 조한준 외, 2020; 홍지우 외, 2018)에서도 사회적 지지가 사회적 또는 일반적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몇몇 연구(김성환·김주섭, 2018)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의무와 책임감이 동반되는 관계에서 사회적지지는 오히려 창업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몇몇 선행연구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연구들이 사회적 지지와 창업의도의 긍정적인 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획된 행동이론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인 효과를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사회적 지지는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2-1: 한국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2-2: 중국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2.4. 정부지원정책과 창업의도

창업지원정책은 창업가에게 창업자금지원뿐만 아니라 창업 교육, 마케팅, 해외진출 및 사후관리 등 정부가 창업관련 통합적인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이다(Johnson, 1990; Gartner & Vesper, 1994). 한국 및 중국은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창업사업화, 연구개발, 창업시설, 창업교육, 마케팅 및 네트워킹 등 다양한 창업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창업활성화 단계의 국내 창업지원정책은 예산의 78% 정도를 예비창업가와 3년 미만의 창업가를 대상으로 지원하였다(신동평 외, 2018). 중국 역시 ‘신창타이(新常态)’시대를 맞이하여 자국 내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적극적인 창업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김인식, 2019). 따라서 한국 및 중국의 예비창업자인 대학생들의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은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핵심변인 중 하나라 하겠다.

정부의 창업지원제도 인식수준은 ‘창업가들이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기업을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창업가들의 인식수준’을 의미한다(안희수·양동우, 2019). 즉,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 상담 및 컨설팅 제도, 자금지원제도, 조세지원제도, 창업인프라 지원제도, 창업교육 지원제도, 국내외 마케팅 지원제도 등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창업가들의 인식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강선자·변상해, 2017).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원정책을 판도 및 수출 지원정책, IR·투자유치·유자·보증 정책, 창업교육 정책, 멘토링 및 컨설팅 정책, 사업화 정책, 창업행사 및 네트워크 지원정책, 창업 R&D 정책, 창업시설 지원 정책 등 8개 영역에 대한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인식으로 살펴보았다.

국내 연구에서 김성식 외(2020)은 메타연구에서 인력지원, 기술지원, 마케팅지원, 경영지원, 시설/장비지원, 교육지원 등 정부지원정책은 창업성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안희수·양동우(2019)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혁신성, 위험감수성, 자율성이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창업의도를 강화한다고 하였다. 선행연구(강선자·변상해, 2017; 박남규 외, 2015; 안희수·양동우, 2019)들은 창업자금정책, 인력정책, 마케팅정책 등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성가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특히, 김성식 외(2020)은 창업지원정책과 창업성가의 메타분석 연구에서 창업지원정책은 창업성가에 중간이상의 효과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에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이 창업의도에 주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3: 정부지원정책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3-1: 한국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정부지원정책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3-2: 중국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정부지원정책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2.5. 국가(한국/중국) 간 차이의 조절효과

본 연구에서는 예비창업자인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개인 및 환경적 영향요인과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국가 간 차이가 조절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Frese & Gielnik(2014)의 ACM 최종모델에서 주장한 것처럼, 창업가들의 창업행동 특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 및 환경적 특성은 국가별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국가문화는 특정 국가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 사회적 규범, 행동강령 등을 의미한다(Hofstede, 1980). 이러한 국가문화는 해당 국가에 속한 국민 개개인의 인지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Hofstede, 2001). 특히, Hofstede(1980)는 대표적인 4개 문화특성 요인으로 개인주의, 권력거리, 남성성, 불확실성 회피 차원을 제시하였다. 이 중 개인주의는 사람들이 특정 집단의 일원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개개인으로서 행동하는 것을 선호하는 국가문화 특성을 의미하며(Hofstede, 1991), 집단주의는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일부라고 여기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국가문화 특성을 말한다. 또한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높은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안정성을 우선 가치로 두기 때문에 독창성이 통제되고 공식적인 체계를 중시하고 순응하는 행동을 선호한다(노현탁 외, 2020). 그러나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낮은 문화권에서는 모험, 도전, 혁신 등에 대한 가치가 높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이 장려되는 문화 특성을 보인다(노현탁 외, 2020). 예를 들어, Mueller & Thomas(2001)는 개인주의가 높은 문화에서는 사람들의 내재적 통제력이 높다고 하였으며, 불확실성 회피성이 낮은 문화에서는 사람들의 혁신성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GEM, 2021)의 보고서에 따르면, 4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초기 창업가적 활동은 개인주의와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권력거리, 불확실성 회피, 남성성 등은 창업가적 활동과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태흠·유효상(2012)은 높은 개인주의, 낮은 불확실성 회피, 낮은 권력거리, 높은 남성성의 문화에서 기업가정신이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국 및 중국의 대학생들은 해당 국가의 문화특성에 영향을 받아 해당국의 창업환경 등에 대한 인식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창업문화는 정부 중심의 창업생태계 구축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창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크게 나타난다. 한국의 창업환경 중 가장 큰 특징은 민간이 아닌 중앙정부의 창업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따른 지원으로 민간부문과의 연계성이 약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창업은 높은 실업률과 취업난에 따른 수동적 진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에(강희찬·왕린, 2017),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과 더불어 긍정적으로 형성된 창업환경이 풍부해짐에 따른 창업을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 주요 20개국 창업교육의 현황 및 효과를 검증한 연구(남정민·이환수, 2017)에서 한국의 창업의지(3.80점)는 중

국(4.55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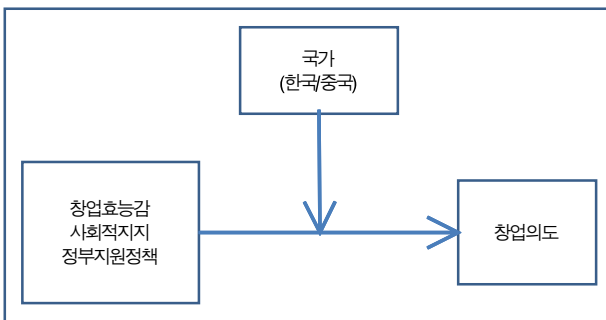
국내 실증연구에서 안진원·유대현(2016)은 개인주의 문화가 창업가적 지향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국과 달리 중국 대학생들의 높은 개인주의 문화는 창업가적 지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이지석·속대봉(2010)은 창업의도에 대한 한중 비교연구에서 ‘관시(關係, Quanxi)’를 중요시하는 중국문화의 특성으로 중국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높은 사회적 지원은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나 한국 대학생들은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하였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은 서양과 달리 집단문화 특성을 보이나 중국은 이지석·속대봉(2010) 연구에서 언급했듯이 ‘관시’가 중요시되는 관계지향적 문화 특성이 한국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창업환경에서 중국은 창업을 새로운 창업기회로 인식하는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낮은 문화특성을 보이나, 한국은 창업을 수동적 진로대안으로 인식한다는 강희찬·왕린(2017)의 주장처럼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높은 문화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개인 특성(창업효능감) 및 환경적 특성(사회적지지, 정부지원정책)과 창업의도의 긍정적인 관계는 중국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에 비해 더욱 높게 나타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 국가 간 차이는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조절될 것이다. 즉,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의 긍정적인 관계는 중국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 5:** 국가 간 차이는 사회적지지와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조절될 것이다. 즉, 사회적지지와 창업의도의 긍정적인 관계는 중국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높을 것이다.

**가설 6:** 국가 간 차이는 정부지원정책과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조절될 것이다. 즉, 정부지원정책과 창업의도의 긍정적인 관계는 중국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높을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 III. 연구설계

#### 3.1. 표본 설정 및 기초통계

설문표본은 한국 및 중국의 대학생(2년제, 4년제)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 대학생은 수도권에 있는 2년제 및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국 대학생은 산둥성, 강소성, 광둥성, 절강성, 사천성, 감숙성 등에 있는 2년제 및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Google의 온라인 설문지 플랫폼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15일까지 총 45일간 실시하였다. 총 643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작성된 17부를 제외하고, 최종 626부를 실증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는 먼저 한국어로 작성된 설문지를 국내 전문 중국어 번역가(한국인)가 중국어 설문지를 작성한 후, 이를 한국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 중국의 문화적 배경에 맞는 표현으로 추가로 보완하였다. 또한 국내 대학의 석사학위과정에 있는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오류수정 과정을 거쳐 최종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서로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할 경우 측정도구의 일관성 및 타당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엄격한 번역과정으로 설문의 의미와 정확성, 객관성을 유지하였다(정대용 외, 2014).

전체 응답자 중 남학생은 296명(47.3%)이며, 한국과 중국은 각각 127명(45.4%), 169명(48.8%)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21.7세이었다. 그 중 한국 대학생의 평균연령은 22.7세이며, 중국 대학생은 20.9세로 조사되었다. 특히, 전체 대학생들의 창업경험은 84명(13.4%)이며, 중국 대학생(57명, 16.5%)들의 창업경험이 한국 대학생(27명, 9.6%)들보다 다소 높았다.

<표 1> 응답자의 표본 특성

구분		전체	한국	중국
성별	남학생	296 (47.3%)	127 (45.4%)	169 (48.8%)
	여학생	330 (52.7%)	153 (54.6%)	177 (48.8%)
학년	1학년	162 (25.9%)	66 (23.6%)	96 (27.7%)
	2학년	152 (24.3%)	96 (34.3%)	56 (16.2%)
	3학년	151 (24.1%)	62 (22.1%)	89 (25.7%)
	4학년	161 (25.7%)	56 (20.0%)	105 (30.3%)
전공	인문사회	279 (44.6%)	172 (61.4%)	107 (30.9%)
	자연공학	189 (30.2%)	64 (22.9%)	125 (36.1%)
	기타	158 (25.2%)	44 (15.7%)	114 (32.9%)

대학	2년제	141 (22.5%)	81 (28.9%)	60 (17.3%)
	4년제	485 (77.5%)	199 (71.1%)	286 (82.7%)
창업 경험	무	542 (86.6%)	253 (90.4%)	289 (83.5%)
	유	84 (13.4%)	27 (9.6%)	57 (16.5%)
국가	한국	280 (44.7%)	280 (100%)	-
	중국	346 (55.3%)	-	346 (100%)

전체 응답자의 학년은 1학년 162명(25.9%), 2학년 152명(24.3%), 3학년 151명(24.1%), 4학년 161명(25.7%)이었다. 또한 전체 대학생들의 전공은 인문사회계열이 279명(44.6%), 자연공학계열이 189명(30.2%), 예체능계열이 158명(25.2%)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대학 특성은 4년제 대학이 485명(77.5%), 2년제 대학이 141명(22.5%)로 나타났다.

### 3.2. 변수측정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 창업효능감은 Wilson et al.(2007)의 창업효능감 척도를 사용한 김미숙·김영국(2012)의 측정도구 5개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주요 설문항목의 예로는 ‘창업과정의 어려운 문제를 잘 극복할 자신감이 있다.’, ‘창업과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등이다.

사회적 지지는 창업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긍정적인 태도를 중심으로 측정도구를 활용한 김춘호(2018)와 송진화(2021)의 측정도구 5개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주요 설문 항목의 예로는 ‘가족들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주변사람들은 창업에 대해 호의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등이다.

창업지원정책은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한 창업가들의 인식을 측정한 Oliver(1980)과 Parasuraman et al.(1994)의 측정도구 8개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항목 예로는 ‘창업교육에 대한 정부정책을 잘 알고 있다.’, ‘정부의 창업행사 및 네트워크 지원을 잘 알고 있다.’ 등이다.

창업의도의 측정도구는 김성환 외(2015)에서 활용한 5개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설문항목 예로는 ‘미래에 창업할 확고한 의지가 있다.’, ‘미래에 취업보다 회사를 창업할 것이다.’ 등이다.

마지막으로 연령, 성별, 학년 등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창업 경험 유무, 대학특성 등의 변인들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연령, 성별, 대학 유형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 IV. 실증결과분석

### 4.1. 신뢰도, 타당성 및 동일방법편의 검증

본 연구의 신뢰도는 내적 일치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Cronbach' a값을 사용하였다. 신뢰도분석 결과<표 2>, 창업효능감(.924), 사회적지지(.925), 정부지원정책(.980), 창업의도(.940)으로 사회학에서 요구되는 신뢰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본 연구의 타당성은 탐색적 요인분석(주성분 분석, 베리맥스 방식)으로 검증하였다. 요인 수의 결정기준은 고유치(eigen value)가 1 이상으로 하였고, 요인 적재치 0.5 이상일 경우에만 분석하였다. 요인분석 결과<표 2>, 요인의 전체 설명력이 82.440%를 보이며, KMO 값이 .966이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통계값이 17246.697(df=253, p=.000)으로 적합하였다.

<표 2>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

구분	요인 적재치	요인				신뢰도	
		1	2	3	4		
창업 효능감	효능1	.819	.321	.372	.324	.687	.924
	효능2	.761	.328	.317	.295	.682	
	효능3	.762	.305	.269	.161	.756	
	효능4	.833	.324	.370	.267	.721	
	효능5	.754	.066	.470	.172	.707	
사회적 지지	지지1	.778	.285	.742	.250	.290	.925
	지지2	.710	.107	.758	.164	.312	
	지지3	.808	.343	.749	.245	.262	
	지지4	.812	.260	.780	.234	.284	
	지지5	.760	.283	.737	.230	.290	
정부 지원 정책	지원1	.863	.844	.234	.234	.201	.980
	지원2	.875	.863	.191	.240	.192	
	지원3	.888	.861	.242	.212	.209	
	지원4	.901	.869	.236	.240	.179	
	지원5	.898	.868	.196	.251	.207	
	지원6	.840	.835	.205	.233	.214	
	지원7	.889	.876	.153	.246	.191	
	지원8	.851	.841	.193	.265	.188	
창업 의도	의도1	.763	.158	.385	.662	.389	.940
	의도2	.830	.329	.266	.761	.270	
	의도3	.882	.335	.284	.791	.252	
	의도4	.858	.452	.199	.765	.171	
	의도5	.827	.493	.192	.724	.153	
아이겐 값		7.345	4.230	3.791	3.596		
분 산(%)		31.934	18.391	16.481	15.635		
누적분산(%)		31.934	50.324	66.805	82.440		

\* 요인적재치 0.5 이하는 생략.

표본데이터는 동일시점에 동일한 측정대상으로부터 자기보고방식으로 조사되었다.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의 문제해결을 위해 Podsakoff & Organ(1986)의 통계적 사후 해결방법인 Harman의 단일요인검증을 실시하였다.

단일요인검증 결과, 총 4개 요인으로 분석되었고, 설명력이 가장 큰 요인은 전체 변량의 31.934%정도만 설명되었을 뿐 지배적인 어떤 요인도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Bartlett 검증(유의수준  $p<.000$ )으로 변수들 간의 관계가 단위행렬이 아니라는 것이 실증되었다. 또한 KMO측정치(0.966)도 최저기준치인 0.5를 상회하여 표본이 적합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동일방법편의가 심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4.2. 상관관계 분석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표 3>, 대학생들의 창업의도는 성별, 창업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창업지원정책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창업효능감은 성별, 사회적지지 및 정부지원정책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적지지는 정부지원정책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지원정책은 연령 및 대학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3> 상관관계 분석결과

구분	1	2	3	4	5	6	7
성별 (남성=1)	1						
연령	.006	1					
대학 (4년제=1)	-.071	.308**	1				
창업 효능감	.097*	-.001	-.028	1			
사회적 지지	.018	-.038	-.040	.780**	1		
정부지원 정책	.067	-.152**	-.087*	.613**	.591**	1	
창업의도	.134**	-.043	-.021	.700**	.676**	.670**	1
평균	.4728	21.725	.7748	3.6105	3.6735	2.8375	3.1805
편차	.4997	.24009	.4181	.9836	.9941	1.2360	1.1872

\* 0.05, \*\* 0.01(양쪽)

### 4.3. 가설검증

창업의도의 영향요인과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22의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과 위계적회귀분석(Hierarchica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한국 및 중국 대학생이 지각하는 창업의도의 영향요인을 검증한 결과는 <표 4>의 [모형 1]과 같다. 첫째, 한국 및 중국 대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창업효능감)과 환경적 특성(사회적지지, 정부지원정책)은 모두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가설 1, 가설

2, 가설 3은 지지되었다.

둘째, 한국 대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창업효능감)과 환경적 특성(사회적지지, 정부지원정책) 모두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가설 1-1, 가설 2-1, 가설 3-1 역시 지지되었다. 특히, 한국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창업의도에는 사회적지지, 창업효능감, 정부지원정책 순으로 영향력을 주었다.

셋째, 중국 대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창업효능감)과 환경적 특성(사회적지지, 정부지원정책) 모두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가설 1-2, 가설 2-2, 가설 3-2 역시 지지되었다. 특히, 중국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창업의도에는 정부지원정책, 창업효능감, 사회적지지 순으로 영향력을 주었다.

<표 4> 창업의도의 영향요인(한중)

	[모형 1] (전체)		[모형 2] (한국)		[모형 3] (중국)	
	비표준 계수	t	비표준 계수	t	비표준 계수	t
(상수)	-.359 (.303)	-1.187	-1.450 (.605)	-2.398	.034 (.336)	.102
성별 (남성=1)	.191** (.060)	3.167	.262* (.110)	2.373	.076 (.067)	1.133
연령	.005 (.013)	.353	.044 (.025)	1.725	-.003 (.016)	-.174
대학 (4년제=1)	.085 (.075)	1.126	-.019 (.125)	-.155	.016 (.099)	.167
창업 효능감	.347*** (.051)	6.760	.384*** (.090)	4.250	.328*** (.056)	5.885
사회적 지지	.296*** (.049)	5.984	.421*** (.085)	4.876	.206*** (.054)	3.807
정부지원 정책	.332*** (.032)	10.408	.154** (.058)	2.645	.436*** (.040)	10.985
$R^2$	.606***		.412***		.767***	
F	161.414		31.889		186.240	

\*  $p<.05$ , \*\*  $p<.01$ , \*\*\*  $p<.001$ , ( )는 표준오차임.

국가(한국, 중국) 간 차이의 조절효과는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Cohen et al., 1983). 먼저,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창업효능감, 사회적지지, 정부지원정책), 2단계에서 조절변수(국가), 그리고 3단계에서는 조절항을 추가로 투입하였으며, 2단계와 3단계에서  $R^2$ 변화량과 조절항의 유의성을 통해 조절효과 여부를 판단하였다.

<표 5> 국가의 조절효과 검증결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상수)	-.359(.303)	-.594(.311)	-.610(.310)
성별(A) (남자=1)	.191(.060)**	.182(.060)**	.177(.059)**
연령	.005(.013)	.022(.014)	.021(.014)
대학 (4년제=1)	.085(.075)	.010(.079)	.017(.078)



창업 효능감(A)	.347(.051)***	.364(.051)***	.355(.051)***
사회적 지지(B)	.296(.049)***	.316(.050)***	.303(.049)***
정부지원 정책(C)	.332(.032)***	.289(.035)***	.309(.035)***
국가(D) (한국=1)		-.214(.074)**	-.220(.073)**
A * D			.040(.050)
B * D			.094(.049)*
C * D			-.172(.042)***
R <sup>2</sup>	.610***	.615***	.626***
△ R <sup>2</sup>		.005**	.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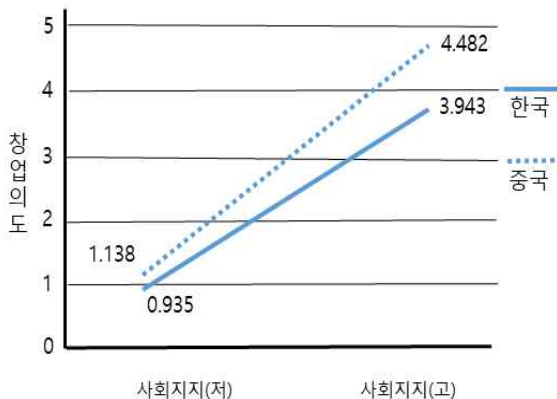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 )는 표준화계수임.

국가(한국, 중국) 간 차이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표 5> [모형 1]~[모형 3], [모형 2]와 [모형 3]에서 R<sup>2</sup>의 변화량 (0.011, p<.01)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여 국가 간 차이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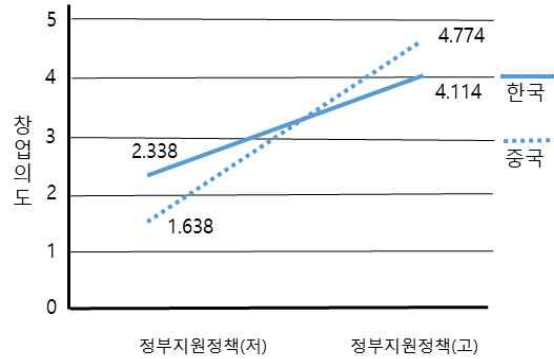
먼저, 창업의도에 대한 창업효능감과 국가 간 차이의 조절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의 긍정적 효과는 국가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는 기각되었다.

둘째, 창업의도에 대한 사회적지지와 국가 간 차이의 조절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 즉, 사회적지지와 창업의도의 긍정적 효과는 중국 대학생이 한국 대학생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5는 지지되었다.

셋째, 창업의도에 대한 정부지원정책과 국가 간 차이의 조절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검증되었다. 즉, 정부지원정책과 창업의도의 긍정적 효과는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아질수록 중국 대학생이 한국 대학생보다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6 역시 지지되었다.



<그림 2> 사회적 지지와 창업의도 사이 국가 간 조절효과



<그림 3> 정부지원정책과 창업의도 사이 국가 간 조절효과

##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인특성(창업효능감)과 환경적 특성(사회적지지, 정부지원정책)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였다. 특히, 개인 및 환경적 특성과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국가 간 차이(한국, 중국)의 조절효과를 실증하였다.

한국 및 중국 대학생 626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창업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정부지원정책 모두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한국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는 사회적지지, 창업효능감, 정부지원정책 순으로 영향력을 주었다. 둘째, 중국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창업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정부지원정책 모두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는 정부지원정책, 창업효능감, 사회적지지 순으로 영향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환경적 특성(사회적지지, 정부지원정책)과 창업의도의 관계는 국가 간 차이에 의해 조절되었다. 사회적지지와 창업의도의 긍정적 관계는 중국 대학생이 한국 대학생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부지원정책과 창업의도의 긍정적인 관계는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수준이 높아질수록 중국 대학생이 한국 대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남정민·이환수, 2017)에서 중국의 기회형 창업수준은 한국에 비해 높고, 자발적 창업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기회형창업은 위험성이 높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창업으로서 창업정책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중국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에 비해 자발적인 창업 및 기회형 창업 수준이 높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수준이 높아질수록 한국 대학생보다 창업의지가 더욱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의 학문적 및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및 중국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창업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정부지원정책 모두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창업의도의 영향요인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에서 창업효능감(Newman et al., 2019), 사회적지지(Hockerts, 2017), 정부지원정책(안희수·양동우, 2019)의 영향과 맥을 같이 한다. 한국 및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의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창업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보다 실질적이고 다양한 창업경험, 창업교육, 창업멘토링 등이 개발 및 지원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또한 한국과 중국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는 사회적지지, 창업효능감, 정부지원정책 순으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는 정부지원정책, 창업효능감, 사회적지지 순으로 영향을 주었다. 예비창업자인 대학생들의 창업의도는 개인적 특성보다 환경적 특성(사회적지지(한국), 정부지원정책(중국))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의 영향력이 더 큰 이유를 살펴보면, 중국은 대학생 창업 지원정책의 상당 부분을 산업정책 및 국가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각 지역의 창업 인큐베이터는 해당 지역의 육성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이곳에 입주하는 대학생 창업의 역량을 해당 지역의 산업발전에 활용하고 있으며, 대학생 창업을 단순히 일자리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의 역량을 산업정책 혹은 국가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난 이유는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있어 부모, 친구 및 지인의 관여 및 영향력이 크며, 창업과정에서 가장 극복하기 힘든 과제가 창업에 대한 부모의 반대를 극복하는 것이라는 점(조문술, 2017)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개인 및 환경적 영향요인과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한국과 중국 국가간 차이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개인적 특성(창업효능감)을 제외한 환경적 특성(사회적지지, 정부지원정책)과 창업의도의 관계에서 한국과 중국 국가 간 차이의 조절효과를 규명하였다. 먼저 사회적지지와 창업의도의 긍정적인 관계는 중국 대학생이 한국 대학생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사회적지지가 높아질수록 한국 대학생들에 비해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의 증가폭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 및 중국 모두 집단문화 특성을 보이거나 이지석·속대봉(2010)의 주장처럼 ‘관시’가 중요시되는 관계지향적 문화특성이 더 높은 중국의 창업생태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중요성을 실증한 연구결과이다. 또한 창업생태계에 있어 중국은 한국보다 한 단계 높은 혁신국가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의 효과성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히,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GEM, 2022) 보고서에서 국내 창업환경에서 외부전문가 확보 용이성, 기업가정신교육 수준 등 사회적지지 관련 지표들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경우 국내 대학생들의 창업의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지지관련 요인들에 대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정부지원정책 인식수준과 창업의도의 긍정적인 관계는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인식이 일정 수준을 경과할 경우, 중국 대학생이 한국 대학생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은 수준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의 창업의도가 높았으나,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인식이 일정 수

준을 넘어설 경우,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의도가 한국 대학생들보다 높다는 것이다. 중국 내 대학생 창업지원의 특징 중 하나는 지원대상이 매우 구체적이고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대학생 창업지원 대상을 대부분 고등교육기관의 졸업생 앞둔 재학생 및 일정 기간 이내의 졸업생으로 한정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근거하여 3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적으로 중국보다는 넓은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대학생’ 창업지원이 아니라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설계되어 있다면 중국은 대학생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원 대상을 설정하여 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있다(김인식, 2019). 이러한 차이는 결과적으로 중국의 창업지원제도는 명확한 대상 설정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지원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가진다는 점에서 창업지원정책의 인식 및 효과성이 한국의 비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창업생태계에서 중국은 창업을 새로운 창업 기회로 인식하는 불확실성 회피성향이 낮은 문화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정부지원정책이 높아질수록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의도가 더욱 강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고등학생, 대학생, 졸업생 등 청년의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각 세대에 맞춤형 창업지원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창업효능감과 창업의도의 긍정적인 관계에서는 한국과 중국 간 차이가 없었다. 창업의도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특성인 사회적 지지와 정부지원정책은 한국과 중국의 문화 및 창업환경의 특성으로 한국보다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개인 특성인 창업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효과는 한국과 중국의 문화 및 창업환경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양국 대학생들의 창업의도를 높이는 주요 개인특성 변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학문적 및 실무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먼저, 연구 표본의 제한성이다. 한국 및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어렵게 수집하였지만, 한국과 중국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의 해석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향후 연구에서는 업종, 지역 등을 고려하여 연구표본을 보다 엄격하게 설계하여 보다 구체적인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창업의도를 통해 실제 창업행동으로 연결되는 인과관계에 대한 추가조사가 요구된다. 창업 의도는 창업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지만, 국내 대학생들의 높은 창업의도와 낮은 창업행위에 대한 다양한 상황적 변수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와 실제 창업행동으로 이어지는 상황조건과 연결고리를 찾음으로써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과 태도, 행동으로 이어지는 매커니즘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 REFERENCE

- 강선자·변상해(2017).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창업준비 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2(4), 85-96.
- 강희찬·왕린(2017). 한·중국 기업가정신 비교 분석.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 927-935.
- 김미숙·김영국(2012). 관광관련 대학생들의 개인적 요인, 교육과 조직적 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외식경영연구*, 15(4), 61-84.
- 김성식·전병훈·윤성임(2020). 창업지원정책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메타분석. *벤처창업연구*, 15(6), 95-114.
- 김성환·김주섭(2018).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6), 303-320.
- 김성환·복경수·박재준(2015). 예비창업자의 자기결정성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5), 15-26.
- 김윤정·서윤교·홍정임(2018). 벤처기업의 내부역량과 성장단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부 지원자금 활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21(2), 636-662.
- 김인식(2019). 중국 대학생 창업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17(1), 55-79.
- 김춘호(2018). 대학생들의 창업교육참여도와 기업가정신, 교내창업지원제도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 남정민·이환수(2017). 주요 국가의 기업가정신 교육 현황 및 효과 연구: 2016년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의 비교. *벤처창업연구*, 12(6), 111-122.
- 남정민·이환수(2019). 아시아 주요 국가별 창업자들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과 창업태도에 대한 연구: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비교 분석.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JSBI)(구 벤처경영연구)*, 22(3), 51-63.
- 남정민·유현경·김윤화·강은정·이현석·장경화·김수진(2022). 대학 창업지원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IPA분석: D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7(2), 53-64.
- 노현철·현병환(2017). 예비창업자의 개인특성과 정부지원정책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논집*, 31(3), 35-66.
- 노현탁·유이정·전경미(2020). 최고경영진의 과업 관련 다양성이 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과 국가문화 특성의 조절효과 분석: 메타분석 연구. *인사조직연구*, 28(2), 101-132.
- 박남규·김명숙·고종욱(2015).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이 창업가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0(6), 89-98.
- 박재준·김달원·황지영·남정민(2022). *창업행동세미나 2판*. 서울: 한경사.
- 송진화(2021). 개인적 특성, 창업지원프로그램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5(2), 126-146.
- 신동평·배용국·손석호(2018).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 지원정책의 현재와 시사점(2018-08)*. 충청북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안진원·유대현(2016).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개인주의가 기업가적 지향에 미치는 영향 비교 연구. *벤처창업연구*, 11(4), 59-69.
- 안희수·양동우(2019). 기업가적 개인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지원제도인식의 조절효과와 함께. *한국창업학회지*, 14(6), 378-410.
- 오상훈·하규수(2013). 창업환경 및 인식이 사업실패부담감을 매개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1(8), 143-157.
- 옥준우·현병환·장은실·양재민(2020). 사회적 지지가 창업의도 및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자기효능감과 창업의도의 매개효과. *벤처창업연구*, 15(1), 151-165.
- 이지석·속대봉(2010).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창업의지 결정요인 비교분석. *아태비즈니스연구*, 1(2), 65-81.
- 이채원·오혜미(2017). 공감, 도덕적 의무감,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기업가적 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2(5), 127-139.
- 정대용·김춘광·양준환(2014). 한·중 대학생 창업의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다중집단 경로분석. *경영교육연구*, 29(3), 176-201.
- 정태흠·유효상(2012). 국가문화가 기업가적 활동과 창업동기에 미치는 역할.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15(4), 29-55.
- 조문술(2017.05.03.). *청년창업, 부모반대 극복이 과제* 미주헤럴드경제, Retrieved from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501000482>.
- 조한준·최대수·성창수(2020). 창업멘토링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적지지,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벤처창업연구*, 15(2), 81-96.
- 한국경영자총협회(2022). 청년 구직자 취업. *한국경영자총협회*, 89, 18-19.
- 홍지우·염지훈·김경환(2018). 예비여성창업자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요인 연구. *생산성논집(구 생산성연구)*, 32(4), 333-362.
- Ahn, H. S., & Yang, D. W.(2019).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s' Personal Characteristic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with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ption of Startup Support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4(6), 378-410.
- Ahn, J. W., & Yoo, D. H.(2016). A Comparative Study of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Individualism o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in Korea and China.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Studies*, 11(4), 59-69.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Ajzen, I.(2019). *Theory of planned behavior*. Retrieved from <http://people.umass.edu/ajzen/tpb.html>
- Bac, T., Qian, S., Miao, C., & Fiet, J.(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A Meta-Analytic Review. *Entrepreneurship Theory & Practice*, 38(2), 217-254.
- Barbosa, S. D., Gerhardt, M. W., & Kickul, J. R.(2007). The role of cognitive style and risk preference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Studies*, 13(4), 86-104.
- Bird, B.(1988). Implementing Entrepreneurial Ideas: The Case for Inten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3(3), 442-453.
- Cho, H. J., Choi, D. S., & Sung, C. S.(2020). A Study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Mentoring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2), 81-96.
- Cho, M. S.(2017.05.03.). *The Challenge to Overcome the Opposition of Young Entrepreneurship and Parents*. Herald Corporation, Retrieved from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501000482>.
- Chung, D. Y., Kim, C. K., & Yang, J. H.(2014). The Effects

- to Entrepreneurial Intention between Korea and China University Student-Focused on Multiple Group Path Analysis.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29(3), 176-201.
- Cohen, J., Cohen, P., West, S. G., & Aiken, L. G.(1983). Applied multiple regression. *correlation analysis for behaviour sciences*. Hillsdale, NJ: Erlbaum.
- Cohen, S., & Hoberman, H. M.(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 Courneya, K. S., Plotnikoff, R. C., Hotz, S. B., & Birkett, N. J.(2000). Social support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the exercise domain. *American Journal of Health Behavior*, 24(4), 300-308.
- Cox, K. C., Lortie, J., & Castrogiovanni, G.(2018). An integrated model of intentional entrepreneurial action. *In Inside the Mind of the Entrepreneur*, 3-15.
- Cox, L., Mueller, S., & Moss, S.(2002).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1(2), 286-299.
- Fishbein, M., & Ajzen, I.(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 Frese, M., & Gielnik, M. M.(2014). The psychology of entrepreneurship. *Annu. Rev. Organ. Psychol. Organ. Behav*, 1(1), 413-438.
- Gartner, W. B., & Vesper, K. H.(1994). Experiments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Successes and failur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9(3), 179-187.
- GEM(2020).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Retrieved (2022.06.01.) from <https://www.gemconsortium.org/>.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 GEM(2021).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Retrieved (2022.06.01.) from <https://www.gemconsortium.org/>.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 GEM(2022).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Retrieved (2022.06.01.) from <https://www.gemconsortium.org/>.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 Hockerts, K.(2017). Determinants of Social Entrepreneurial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41(1), 105-130.
- Hofstede, G.(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CA: Sage Publications.
- Hofstede, G.(1991). *Empirical models of cultural differences*. Washington, D. C.: Swets & Zeitlinger Publishers.
- Hofstede, G.(2001). *Cultural consequences*. Thousand Oaks. CA: Sage.
- Jeong, T. H., & Ryou, H. S.(2012). The Influence of National Culture on Entrepreneurial Activity and Motive.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Studies*, 15(4), 29-55.
- Hong, J. W., Yeom, J. H., & Kim, K. H.(2018).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potential female entrepreneurs. *Productivity Review*, 32(4), 333-362.
- House, J. S.(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MA Reading: Addison-Wesley.
- Johnson, B. R.(1990). Toward a Multidimensional Model of Entrepreneurship: The Case of Achievement Motivation the Entrepreneu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1), 39-54.
- Kang, H. C., & Wang, L.(2017). A Comparative study on the Entrepreneurship of Korea and China.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 927-935
- Kang, S. J., & Beon, S. H.(2017).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re-founders, Characteristics of Start-up Preparations Impact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4), 85-96.
- Kim, C. H.(2018).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Entrepreneurship, University Entrepreneurship Support System at University Students: Focused on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 Kim, I. S.(2019). A Study on the Start-up Support Policy for University Students of China. *Korean-Chinese Social Science Studies*, 17(1), 55-79.
- Kim, M. S., & Kim, Y. G.(2012). Effects of Individual Trait, Educational, Organizational Factor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 Tourism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Journal of Food 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15(4), 61-84.
- Kim, S. C., Jeon, B. H., & Yun, S. I.(2020). Meta-analysis on the Effect of Startup Support Policies to Startup Performance.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6), 95-114.
- Kim, S. H., & Kim, J. S.(2018).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6), 303-320
- Kim, S. H., Bok, K. S., & Park, J. C.(2015). Relationship Among Self-Determinatio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5). 15-26.
- Kim, Y. J., Suh, Y. G., & Hong, J. I.(2018). The Effects of Internal Competence and Growth Stages on the Performance of Venture Business: the Moderating Effect in Connection with Government Funding Utilization.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21(2), 636-662.
- Korea Enterprises federation(2022). Survey on Employment Perception of Young Job Seekers. *Korea Enterprises federation*, 89, 18-19
- Krueger, N. F., Reilly, M. D., & Carsrud, A. L.(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6), 411-432.
- Lee, C. W., & Oh, H. M.(2017). An Effect of Compassion, Moral Obligation on Social Entrepreneurial Intention: Examining the Moderating Ro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5), 127-139.

- Lee, J. S., & Xu, D. P.(2010). A Comparison of determinant factors of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among Korean and Chines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1(2), 65-81.
- Mair, J., & Noboa, E.(2006). *Social Entrepreneurship: How Intentions to Create a Social Venture Get Formed, Social entrepreneurship*. UK: Palgrave Macmillan.
- McGee, J. E., Peterson, M., Stephen, L., Mueller, S. L., & Sequeira, J. M.(2009).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Refining the measure. *Entrepreneurship Theory & Practice*, 33(4), 965-988.
- McGee, J., & Peterson, M.(2017). The long-term impa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n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7(3), 720-737.
- Mueller, S. L., & Thomas, A. S.(2001). Culture and entrepreneurial potential: a nine country study of locus of control and innovativeness. *Th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6(1), 51-75.
- Nam, J. M., & Lee, H. S.(2017).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and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Major Countries: Comparison of the 2016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2(6), 111-122.
- Nam, J. M., & Lee, H. S.(2019).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Entrepreneurial Environment and the Attitude of Entrepreneurs by Asian Countries: Comparative Analysis of China, Japan, Korea, and Singapore.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Studies*, 22(3), 51-63.
- Nam, J. M., You, H. K., Kim, Y. H., Kang, E. J., Lee, H. S., Jang, K. H., & Kim, S. J.(2022). An Analysis of IPA for the Improvement of University Start-up Support System: Focusing on the Case of the D University.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Studies*, 17(2), 53-64.
- Newman, A., Obschonka, M., Schwarz, S., Cohen, M., & Niesen, I.(2019).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 systematic review of the literature on its theoretical foundations, measurement, antecedents, and outcomes, and an agenda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10, 403-419.
- No, H. C., & Hyun, B. H.(2017). The effects of potential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and governmental entrepreneurship support system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governmental entrepreneurship support system. *Productivity Review*, 31(3), 35-66.
- Oh, S. H., & Ha, K. S.(2013). Effect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by Start-up Environment and Self-efficacy Mediated by Fear of Business Failure. *The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1(8), 143-157.
- Ok, J. W., Hyun, B. H., Chang, E. S., & Yang, J. M.(2020). A Study o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Entrepreneurial Behaviors: Mediating Effects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1), 151-165.
- Oliver, R. L.(1980). A Cognitive Model of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atisfaction Decision.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7(4) 460-469.
- Parasuraman, A., Zeithaml, V. A., & Berry, L. L.(1994). Alternative Scales for measure in Service Quality: A Comparative Assessment based on Psychometric and Diagnostic Criteria. *Journal of Retailing*, 70(3), 201-230.
- Park, J. C., Kim, D. W., Hwang, G. Y., & Nam, J. M.(2022). *Entrepreneurial behavior seminar 2nd*. Seoul: Hankyungsa.
- Park, N. G., Kim, M. S., & Ko, J. W.(2015). The Effect of the Government's Entrepreneurial Support Policy on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0(6). 89-98.
- Podsakoff, P. M., & Organ, D. W.(1986). Self-reports in organizational research: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management*, 12(4), 531-544.
- Roh, H. T., Ryou, Y. J., & Chun, K. M.(2020). A Meta-Analytic Investigation of Task-Related Diversity and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Integration in Top Management Teams and the Moderating Role of National Cultural Characteristics. *Korean Journal of Management*, 28(2), 101-132.
- Shin, D. P., Bae, Y. G., & Son, S. H.(2018). Current and Implications of the Technology-Based Startup Support Policy.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2018(8)*. Chungcheongbuk-do: KISTEP.
- Song, J. H.(2021). Study Of Effectiveness Of Personal Trait & Startup Supporting Program On Startup Willing And Regul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For Performance Art Major Student. *The Journal of KCEBA*, 5(2), 126-146.
- Thoits, P. A.(1986). Social Supports as Coping Assista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4(4), 416-423.
- Thompson, E. R.(2009). Individual Entrepreneurial Intent: Construct Clarification and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ly Reliable Metric. *Entrepreneurship Theory & Practice*, 33(3), 669-694.
- Turker, D., & Selcuk, S. S.(2009). Which factors affect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33(2), 142-159.
- Veciana, J. M., Aponte, M., & Urbano, D.(2005).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s Entrepreneurship: A Two Countries Compariso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2), 165-182.
- Wang, C., Wong, P., & Lu, Q.(2002). *Tertiary educ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 P. Phan (Ed.), *Technological entrepreneurship*.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Publishing.
- Wilson, F., Kickul, J., & Marlino, D.(2007). Gender,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s: Implications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1.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1(3), 387-406.

# Factors Influenc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Korean and Chinese College Students and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Focusing on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Government Support Policy\*

JaeChun Park\*\*

JungMin Nam\*\*\*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government support policy)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for college students in Korea and China. In particular, the moderating effect of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Korea and China) was demonstr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626 Korean and Chinese university students are as follows. First, all of the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government support policies perceived by Korean college students had a positive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particular, Korean college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s were influenced in the order of social support,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government support policies. Second, all of the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social support, and government support policies perceived by Chinese college students had a positive effect on start-up intention. In particular,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Chinese college students was influenced in the order of government support policy,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government support poli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was adjusted by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First,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was generally higher for Chinese college students than for Korean college students. In addition,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support poli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was higher for Chinese college students than for Korean college students as the level of awareness of government support policy increased.

Finally,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intention of Korean and Chinese college students to start a business were presented, and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were presented based on this study.

*Keyword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social support, government support policy, entrepreneurial intention, Korea, China*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0S1A5A2A03041627)

\*\* First Author,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innosapark@dankook.ac.kr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namjm@dankook.ac.kr